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마태복음 ☉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 5:3-8)

The Blessing of the Pure in Heart (Matt. 5:3-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8절)
8절에는 마음과, 청결과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박노철 목사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The words, “heart” and “purity” appear in verse 8, which have the meaning of seeing God.

1. 마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 katharos”로 정화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1. Heart

By starting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emphasized the heart very much. In this text, it says that the heart must be clean. The word, purity, ‘katharos’ in Hebrew means purification, cleanness, and beauty.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렘 17:9-10).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 속에 모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Who can understand it?” “I the Lord search the heart and examine the mind, to reward a man according to his conduct, according to what his deeds deserve”(Jer 17:9-10).

The worst and most corrupt thing in the world is the heart of human beings. Jesus who already knows this fact said that all the things coming from our heart make people dirty and the Apostle Paul also said that the human beings’ heart is full of the brutality of immorality.

2. 청결

청결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 한결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뉘지 않은 한 가지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2. Purity

The word, ‘purity’ means unmixed purity and invariability. Like this, if we fear God and look at Him with only one heart undivided, it is the most wonderful blessing that we, as human beings, can enjoy and experience.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The pure in heart” in a word, means that we see God with our whole heart. It is the fact that I see what God sees, that I obey what God commands me, and the desire that God wants becomes mine. To achieve it, if we live our life with an undivided heart, it will amount to the pure in heart.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도덕적인 결함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f so, how can we be the pure in heart? First of all, we must realize that no matter how hard we struggle in morals and ethics, we are not able to have a pure heart. Because, the more we struggle to be clean in morals and ethics, the more we only receive the moral fault.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Then, how can we have a pure heart?—It is not said that the pure heart can be gained by struggling to have no defect in morals and ethics. However, God gives us the pure heart as a gift, when we only rely on Jesus Christ by believing in Him.

3.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사랑, 긍휼, 도우심,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3. They will see God

Seeing God means that we can see God’s glory, love, righteousness, help, and leading with our eyes of belief. Like this, those who see God live a victorious life that the world cannot achieve.

갈렙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Caleb, Abraham, and the Apostle Paul lived a victorious life with a pure heart by seeing the trustworthy and omnipotent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By being indebted to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nd becoming the pure in heart,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blessed people who are seeing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서울교회 내선전화 연결 시스템 변경 안내

이제는 교구목사님께 직접 거세요

서울교회 전화시스템이 변경되었다. 구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내선전화 시스템은

① 교회 대표전화 02)558-1106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문의전화는 계속 사무국에서 응답 후 해당부서로 연결한다.

② 성도들과의 통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교회내 각 호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에 개별 전화번호를 부여하였다.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전화에는 개별전화 번호로 나가게 되며 통화실패 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전화로 걸면 바로 해당 호실의 교역자 혹은 직원에게 연결된다.

· 교역자 전화번호

한상은 2193-8881 서명철 2193-8882 정수길 2193-8883 장석남 2193-8884 황광 2193-8885 유문건 2193-8886 박광일 2193-8887 박진아 2193-8888

· 직원 전화번호

사무국장(유태서) 2193-8810 관리(최낙준) 2193-8813 음향실(윤요섭) 2193-8821 식당(이영주) 2193-8841

2011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월21일(월)~26일(토), 강사 : 박노철 목사

지난 10월 9일(주) 시작된 2011 사명자 대회가 온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24시간 연속 기도는 맑은 자들이 책임 있게 잘 감당하므로 기도의 불꽃이 타고르고 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11월 11일(금)

오후 7시 현재 1904명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였으며 성경은 8독 중에 있다. 또한 11월27일(주), 12월4일(주)에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를 갖는다.

2012년 섬김위원 봉사지원신청서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2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지난 주일 후보 삽지로 제공된 봉사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봉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 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봉사를 계속하기를 원

2011년 하반기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 프로그램 수료식

총 317명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10주간 계속되었던 하반기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 프로그램이 모든 학사일정을 마치고 수료하였다. 이

번 학기는 총 317명이 수료하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갖는다. 다음은 과정별 수료자 명단이다.

창세기(18)

김애순 김은순 김정애 김정희 박길희 박순복 선순요 손경화 송희경 윤옥주 이미란 이영자 이용식 임순자 장성자1 전현주 최성희 최종희

베드로전서(5)

김옥순 송인덕 이홍숙 장선자1 조영만

소선지서(16)

강신행 권진순 김옥순 김찬진 남상경 손윤문 송미령 양춘경 유선희 유성택 이상옥 이상호2 이인숙2 장성자1 조정옥 최규초

성경통독(65)

권민정 권은주 김경복 김경희10 김경희12 김경희14 김선희 김연희 김화정 문정원 박경순 박길희 박문경 성기원 이미란 이영미 이영옥 이은미 이인보 이인숙4 이재경 이주연 정부순 정영희 조하나 최민자 허화영 홍지나 황성희 (구약 29명)

강정숙 강현숙 권민정 권은주 김경복 김경희10 김경희12 김경희14 김연희 김정애 김화정 문정원 박길자 박길희 박문경 배은경 성기원 윤정선 이소연 이영미 이영옥 이옥희 이은미 이인보 이인숙4 이정희 이주연 이현주 정부순 조정옥 조하나 최민자 한호숙 허류미 홍시영 황성희(신약 36명)

교사 양성반(9)

김규송 김금재 김은아5 김정윤2 라승현 안인선 이미영

2 조하나 최성을

교구일꾼 양성반(3)

강신행, 문남이, 이정희11

결혼예비학교(8)

김성수2 노혜진 / 박상규 정지아 / 김홍기1 이새물 / 최재호1 이인애

주부대학(14)

김양숙 김용현 백명자1 윤 은 윤미선 이은진1 이은경4 이인숙2 조정옥 황선옥1 박우주 이인순 박순복 이부자

살렘경로대학(39)

계상완 공진문 김기순 김선자3 김순인 김신애 김자경1 김혜경 김화자 문홍식 박두영 백영숙 서귀용 송옥혜 신계순 심상덕 심영숙 엄정순 원명희 유명옥 유순임 이남복 이민화 이보옥 이부자 이운창 이재순 이주옥 전인화 전향자 정애신 조봉환 조순이 최급자1 최무순 최정옥 최향봉 최화옥 황성연

선교대학(12)

권소희 김경애 김미경 김혜중 박영석 박윤혜 오은희 윤명구 이성희 이영기 장영순 홍미선

꼬꼬마 가베 학교(29)

강민규 강예교 권도영 권예지 김민석 김윤호 노 윤 문수연 박서준 박인성 박준우 박찬용 소신우 소하단 손예진 오선아 윤민준 윤태민 이수아 이수우 이태민 장서연 정예원 정지성 정혜리 조민성 조수아 최주하 최희준

영여성경(20)

김 설 김나경 김명은 김미경 김법집 김사라 김성미 김성혜 김종필 김진성 김현영3 박미영3 박정민 백주연 서정용 신현일 신혜식 우미란 이재덕 정수근

신약의 파노라마(79)

강석조 고애순 구희은 권명희 권자영 권진순 김경진 김선희 김성혜 김세경 김수정 김순영 김영옥 김옥순 김유정 김윤희 김은숙 김인실 김인영 김지연 김진현 김혜중 김홍두 나은숙 나현주 문남이 박미선 박미숙 박미애 박 옥 박이선 박혜선 송행희 안경옥 안성희 오정숙 오혜정 유묘종 유슬기 유하영 윤현미 윤혜련 이미경 이순기 이은희 이은경 이은영 이창희 이현경 이희숙 임애연 임영숙 장성자1 장영순 장호림장효영 전광환 전희미 정기자 정봉금 정영실 조명옥 조선임 조은희 주해민 진교숙 차경은 차영림 최세정 최영희 최은석 최향복 허미옥 현승희 홍미선 홍성숙 홍정란 황영숙 황현숙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8]

(문 25) 레위기18장과 20장에서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창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였고 사사기11장에서는 입다가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용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위인가요?

(답) : 창 22:2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해석이 어려운 난해구절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명령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와 사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창22:11-12)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 하심은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은 인신 공제로 바쳤다가 보다 성소의 봉사자로 처녀로서 여생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기 18:21에서 결론코 네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몰래신에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극렬하게 금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처럼 단호하게 인신공제를 금하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입다의 서원을 통해 인신 생명을 제물로 바치도록 기대했다거나 또는 묵인해주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은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다음주 계속)



이 땅의 사명자들은 실력, 권력,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 봉사, 헌신, 낮아짐을 모릅니다. 언제나 나밖에 없고 나뿐이고 나를 위합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을 빙자하여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만이 그랬고 아히도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명자는 다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의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마침내 세상을 바꾸고 영원을 날게 합니다. 이런 사명자는 흔하지도 않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명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여자이고 가정

주부, 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무슨 거창한 사명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이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나를 통하여 디모데 같은 아들이 생겨나고 손양원 목사 같은 인물이 탄생한다면 나는 간접사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큰 일의 사명자로 나서지는 못해도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사명자를 키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사명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길이 힘들고 험해도 사명자의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사명자로
부름 받은
우리

오치열 집사(제2스데반회 회장)

우리를 각각 사명자로 불러주시어 오늘 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높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년 전 찬 마룻바닥에 기도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이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 특은을 베풀어주시어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무역국가로 만드시고 이제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교회는 20살 성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내치와 외치를 아우르면서 민족의 구원선이자 세계의 나침반의 사명을 실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후임으로 박노철 목사님이 오셔서 비약과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을 깊이 깨달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적으로는 내년이면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전 세계적인 불황의 언저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국가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깊고 큰지를 깨달아 알겠지만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능력없는 저를 제 2스데반회 회장으로 세우셔서 대과없이 계 획된 바를 잘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명자대회 기간에 각기 그 사명을 잘 알고 깨달아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서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넉넉히 승리하라

강신행 권사(비전2020)

지난 5일 비전 2020 본부는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 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보급 받은 빨간 명찰을 단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멋진 훈련병들의 모습이 군장교의 아내였던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전방은 겨울이 시작됩니다. 왜 그 리도 군대에는 추위도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에 해병1150기, 후보생332기 가운데 330명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서명철 목사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아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 장군예복을 입으신 이갑진 장로님의 격려와 사진촬영은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었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을 마치고

며 앞으로 실무부대에서도 신앙생활 중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은 전역 때까지 아니 세상 끝날 까지 넉넉히 승리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젠 세상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례 받은 하나님의 아들

모두는 믿음이 투철한 영적 무장을 한 뒤 군대 안에서나 제대 후에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에 귀한 일꾼이 많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에 4월 등록하여 군 선교와 VISION 2020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에 힘쓰며 이들 모두는 결혼 후 가정을 이루어 전 국민의 75%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2020년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60만 장병이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뜨겁게 기도 해주십시오.

(지난 주 해병대 사진은 23사단이 아닌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으로 정정 합니다.)

사명자 대회

65세의
청춘을
맛보시려면

정병무 은빛장로



우리 서울교회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은빛 찬양대를 아시나요?

주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쓸모를 따라, 제각기 최고의 작품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결과품들이, 한분 한분 502호로 모여들기 시작하지요.

왜냐고요? 매월 첫 주 수요일 1부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교회 최고령 정규 찬양대인 "은빛찬양대"가 연습할 시간이거든요. 약 1시간여의 연습시간은 마치 천사들의 경연장을 방불케 하며, 웃음보따리 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답니다.

노년으로서 마지막 헌신 봉사의 장이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현장이 궁금하시고, 65세의 청춘을 새롭게 맛보시고 싶으시면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며, 다가오는 2012년의 한해는, 다시 한 번 노년의 열정을 쏟아,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한해로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교회 65세 이상 남녀 세례교인이라면 자격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며, 크신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자녀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편지왔어요

체코 프라하에서 일보를 위한 자선음악회

손신일 · 민매라 선교사(체코)

지난 3월11일에 일본 동북지방에 있었던 지진과 쓰나미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저희들도 프라하 꼬블리쉬교회 여러 공동체와 힘을 모아 10월15일에 일본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체코에서도 지금까지 일본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일본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인 음악유학생, 체코와 한국 연주자, 일본인학교 어머니중창단, 그리고 일본어예배 공동체 찬양대가 연주하고, 많은 체코, 일본 청중이 참석하여 주님 안에서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오르간, 관현악과 합창이 함께 하여



Bach의 "인류의 기쁨이 되신 예수"를 연주하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한화로 130여만원의 모금을 모아 체코 기독교협의회를 통해서 일본 기독교협의회의 지원활동에 보냈습니다. 아직도 신음 가운데 있는 일본 땅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장연 수석 부회장 선거임박



우리교회 오정수 장로가 출마한 예정 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 부회장 선거가 오는 17일(목)에 있다. 수석부회장에 선출되는 후보는 차기 당연직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나타나는 선거가 되도록 서울교회 온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내 기도모임 사전 허락받도록

현재 교회 내에 각종 기도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주중에 성도들이 사용하는 방의 열쇠를 내드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적극 도와드리고 있으나 다만 교회(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이다 보니 그 성격을 알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도 생기고 있다. 교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기도 모임은 교회(당회)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사무국을 통해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기도 모임은 교회가 허락하지 못함을 숙지해 주시고 꼭 모임의 명칭, 목적, 모임 멤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사무국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월15일(화) 교회연합신문창간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강의한다. 11월16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회 및 임원회에 참여한다. 11월17일(목) 스위스제네바한인교회 창립33주년기념감사예배와 사경회 인도차 출국한다.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11.13) 이삭선교회(11.20)

■ 금주의 식사: 옥중호 집사, 손지희 집사
한상욱 집사, 손영희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11월8일(화) 제49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에서 목사서약하는 박노철 목사



11월 10일(목) 수능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

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성경퀴즈대회

11월19일(토) 오후 2시 70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연합회(회장 서오석 장로:베다니교회) 주최 성경퀴즈대회가 11월 19일(토) 오후 2시에 701호에서 열린다. 각 지회 11개팀,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새가족 환영회

2011년 마지막 새가족 환영회가 19일(토) 오후4시30분 801호에서 열린다. 지난 7월17일 이후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자 중 지난 번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 못한 모든 이들을 초청한다. 참석자는 오후4시30분까지 801호에 모여 찬양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011 하반기 화요 정오음악회- 11월 15일(화) 백금옥 오르간 연주회



연세대 교회음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 졸업 (Orgel, Cembalo)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장 역임
現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한국교회음악학회 회장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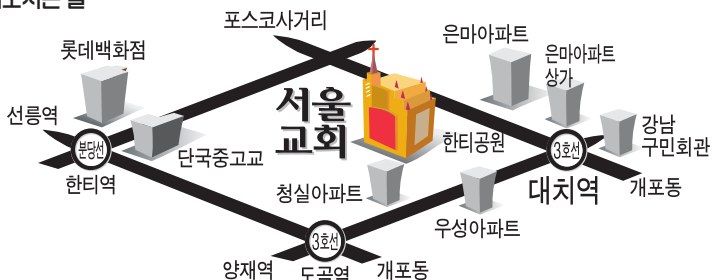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1 사망자 대회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며 특별새벽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 우리 교회 오정수 장로님이 출마하고 있는 11월 17일(목)에 있는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 부회장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뤄지도록
-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에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 21세기에 마음껏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